

#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 09호 | 발행인: 이영 | 발행일: 2012년 12월 01일 |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12 December

## ‘5세 누리과정’ 첫 시행, 높은 만족 그러나 개선 필요

### I. 배경

- 지난 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취학 1년 전 만 5세 유아에게 동일한 공통과정을 배우도록 하는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함.
  - ▶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만 5세 유아에게 비용을 지원하여<sup>1)</sup>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무교육기간을 사실상 10년으로 확대하여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함.
  - ▶ ‘5세 누리과정’은 기본생활습관과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며, 전인 발달이 고루 이루어진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함.
- 올해 첫 시행하는 ‘5세 누리과정’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보호자) 입장에서 ‘5세 누리과정’의 이용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 ▶ 응답자는 1,605명으로 이 중 1,079사례(67.3%)는 작년과 동일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383사례(23.9%)는 작년에 이용하던 기관을 올해 변경하였으며, 143사례(8.9%)는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

작년과 동일한 기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1,079사례  
(67.3%)로 가장 많음.

〈표 1〉 응답자의 기관 이용 특성

단위: %(명)

| 구분         | 국공립·법인<br>어린이집 | 민간<br>어린이집 | 국공립<br>유치원 | 사립<br>유치원 | 전체           |
|------------|----------------|------------|------------|-----------|--------------|
| 올해 처음기관이용  | 12.0           | 19.7       | 29.6       | 38.7      | 100.0( 143)  |
| 작년과 동일기관이용 | 14.5           | 28.9       | 18.6       | 38.0      | 100.0(1,079) |
| 올해 기관변경    | 5.7            | 14.4       | 38.4       | 41.5      | 100.0( 383)  |

$\chi^2(df) = 91.54(6)***$

\*\*\*  $p < .001$

1)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 2016년 월 30만원 지원할 계획임.

## Ⅱ.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94.5%가 '5세 누리과정' 정책을 알고 있었으며, 2011년 12월~2012년 1월쯤에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5세 누리과정' 정책에 대해서는 94.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 ▶ '내용은 정확히 모르나 알고 있다'는 68.3%,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26.2%이며, '잘 모른다'는 5.5%에 그침.
  - ▶ 알게 된 시기는 2011년 12월~2012년 1월이 36.7%로 가장 많았고, 절반 가까이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49.9%).
- '5세 누리과정' 교육·보육과정에 대해서는 76.3%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 작년과 동일 기관 이용 학부모에게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 교육·보육과정의 변화 정도를 알아본 결과, '변화가 거의 없다' 47.6%, '변화가 있다' 21.7%가 응답함.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찬성 88.4%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지지함. 중소도시 거주 가구와 월 200만원 미만 가구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옴. (각각 90.5%, 95.9%)

- '5세 누리과정' 정책에 대해 찬성이 88.4%, 반대가 9.3%임.
  - ▶ 반대하는 경우는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상교육·보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33.4%), 기본보육료·수업료 외의 기타 비용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대도시 거주와 월 소득 300만원~500만원 미만 가구가 반대하는 비율이 각각 10.8%, 10.3%로 평균보다 높음.

## Ⅲ. '5세 누리과정' 기관 이용 시 비용 부담

'5세 누리과정 시행' 이전에는 기관 이용 시 월 평균 201,200원을 지불했다면, 시행 이후에는 평균 111,800원으로 89,400원이 감액됨.

-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 기관 이용 시 특별활동프로그램 비용을 제외한 부모 부담 월 보육료와 교육비의 변화

〈표 2〉 '5세 누리과정' 전·후 기관 이용 시 월 부모 부담 비용 변화

단위 : 천원(명)

| 구분        |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       | 사례수     |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      | 사례수     |
|-----------|--------------|-------|---------|--------------|------|---------|
|           | 평균           | 표준편차  |         | 평균           | 표준편차 |         |
| 기본보육료·수업료 | 123.5        | 119.3 | (1,462) | 38.9         | 59.6 | (1,598) |
| 현장학습비     | 13.2         | 16.4  | (1,179) | 11.6         | 13.2 | (1,295) |
| 교재비       | 19.6         | 21.4  | (1,173) | 18.8         | 20.8 | (1,290) |
| 급·간식비     | 27.3         | 21.9  | (1,141) | 26.2         | 23.3 | (1,266) |
| 종일반       | 26.2         | 35.3  | (1,086) | 24.0         | 32.9 | (1,200) |
| 차량운행비     | 6.9          | 11.0  | (1,059) | 6.1          | 10.8 | (1,182) |
| 각종 행사비    | 7.7          | 18.2  | (1,080) | 7.2          | 13.6 | (1,177) |
| 월평균 지불비용  | 201.2        | 145.1 | (1,462) | 111.8        | 90.3 | (1,605) |

주: '5세 누리과정 시행 후' 비용은 월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이용 기관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외의 유아대상 학원도 포함됨.  
 무상이용은 0원으로 응답한 결과임.

- ▶ '5세 누리과정' 시행 전 보육료와 교육비 부담이 월평균 201,200원이었으며, 시행 후의 부담은 월평균 111,800원으로 89,400원이 감소됨.
- ▶ 보육료와 교육비 중 기본보육료·수업료의 감소폭이 84,600원으로 가장 컸으며, 다른 비용들도 작년에 비해 비용이 소폭 감소함.

5세 누리과정 시행 이후 월 보육료와 교육비(특별활동프로그램 비용 제외)가 낮은 기관 순으로 보면, 국공립유치원 43,000원, 국공립어린이집 87,000원, 민간어린이집 116,000원, 사립유치원 163,000원임.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이용 비용 격차가 상당히 큼.

- 2012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기관유형별 부모 부담 월 교육비·보육료
  - ▶ 부모 부담 월 교육비·보육료는 국공립유치원이 43,0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사립유치원이 163,100원으로 가장 비쌈. 유치원 간의 비용이 약 4배 차이가 남.
  - ▶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은 87,400원, 민간어린이집은 110,600원임.
  - ▶ 전체 부모 부담 비용 111,800원보다 비용이 현저히 낮은 기관은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법인어린이집으로 국공립 기관의 비용부담이 낮게 나타남.

〈표 3〉 2012년 기관 이용 시 월 부모 부담 비용(기관유형별)

단위 : 천원(%)

| 구분        | 기관유형별                |                  |                  |                 | 사례수     |
|-----------|----------------------|------------------|------------------|-----------------|---------|
|           | 국공립·법인<br>어린이집(표준편차) | 민간어린이집<br>(표준편차) | 국공립유치원<br>(표준편차) | 사립유치원<br>(표준편차) |         |
| 기본보육료·수업료 | 27.8(43.4)           | 35.2(50.0)       | 4.4(19.8)        | 66.2(71.9)      | (1,598) |
| 현장학습비     | 11.2(13.7)           | 14.3(15.9)       | 7.4(10.5)        | 12.8(12.0)      | (1,295) |
| 교재비       | 14.7(19.5)           | 20.9(21.0)       | 7.6(11.5)        | 25.4(22.4)      | (1,290) |
| 급·간식비     | 14.5(19.0)           | 24.5(21.6)       | 18.2(18.8)       | 35.9(24.3)      | (1,266) |
| 종일반       | 22.9(28.4)           | 25.9(31.7)       | 11.9(22.2)       | 31.0(38.3)      | (1,200) |
| 차량운행비     | 5.4(9.2)             | 5.7(9.1)         | 1.5(5.3)         | 9.2(13.2)       | (1,182) |
| 각종 행사비    | 6.9(13.7)            | 7.8(11.2)        | 2.9(6.2)         | 9.6(17.1)       | (1,177) |
| 월평균 지불비용  | 87.4(77.9)           | 110.6(71.9)      | 43.0(42.9)       | 163.1(94.4)     | (1,605) |

주: 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월 20만원을 제외한 비용임.  
무상이용은 0원으로 응답한 결과임.

94.9%가 '5세 누리과정' 정책으로 월 20만원 지원이 가구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월 20만원 절감된 금액의 사용처는 지역별,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있음.

- 월 20만원 비용지원으로 인해 가계경제 도움 정도에서 94.9%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절약금액의 주 사용처는 가족생활비 41.8%, 해당자녀 사교육비 39.3%, 다른 자녀 사교육비 6.8% 등으로 나타남.
  - ▶ 중소도시 거주자와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에서 도움이 크다는 응답이 많음.
  - ▶ 중소도시와 읍면 거주자, 그리고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에서 가족생활비로 주로 사용하며 대도시 거주자와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사교육비 사용이 높게 나타남.

〈표 4〉 비용 지원으로 인한 절약금액의 주 사용처

단위 : %(명)

| 구분                           |              | 가족<br>생활비 | 해당 자녀<br>사교육비 | 다른 자녀<br>사교육비 | 다른 자녀<br>기관이용비 | 기타  | 사례수          |
|------------------------------|--------------|-----------|---------------|---------------|----------------|-----|--------------|
| 전체                           |              | 41.8      | 39.3          | 6.8           | 5.8            | 6.4 | 100.0(1,605) |
| 지역<br>규모                     | 대도시          | 34.6      | 46.2          | 7.6           | 4.7            | 6.8 | 100.0( 655)  |
|                              | 중소도시         | 46.9      | 36.2          | 5.6           | 6.5            | 4.8 | 100.0( 639)  |
|                              | 읍면           | 46.4      | 30.8          | 7.3           | 6.8            | 8.6 | 100.0( 311)  |
| $\chi^2(df) = 39.083(8)***$  |              |           |               |               |                |     |              |
| 월평균<br>가구소득                  | 200만원 미만     | 62.7      | 17.0          | 3.6           | 10.5           | 6.2 | 100.0( 104)  |
|                              | 200~300만원 미만 | 50.5      | 32.3          | 7.1           | 3.9            | 6.2 | 100.0( 517)  |
|                              | 300~500만원 미만 | 36.4      | 43.3          | 7.4           | 6.9            | 6.0 | 100.0( 835)  |
|                              | 500만원 이상     | 27.5      | 55.9          | 3.9           | 3.6            | 9.1 | 100.0( 149)  |
| $\chi^2(df) = 81.788(12)***$ |              |           |               |               |                |     |              |

\*\*\*  $p < .001$

#### IV. '5세 누리과정'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 정부는 '5세 누리과정' 정책 실시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기대했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학부모들이 '5세 누리과정'을 인지하게 된 시점이 정책발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가 가장 많았으므로 정부는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실시해야 함.
  - ▶ '누리과정'의 교육·보육내용에 대한 홍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입학설명회, 부모교육, 학부모 상담 등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함.
-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기관 간의 이용 비용 격차를 좁히는 방안이 필요함.
  - ▶ 비용이 저렴하면서 학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기관을 적은 지역 중심으로 확충하여 학부모의 형평성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
- 모든 가구에 비용지원을 하되 금액은 차등을 두어야 함.
  - ▶ 고소득가구에서 지원 금액을 사교육에 쓰는 경우가 많았음.
- 취학 전 1년 간 실질적인 무상 교육·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 기본 보육료·수업료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급식비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무상지원을 제안함.

기관 선택권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기관 간의 이용 비용 격차를 좁히는 방안이 필요함.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을 하며 급식비 무상 지원을 통해 무상교육·보육정책을 실현함.

이윤진 부연구위원 leeyunjin@kicce.re.kr